



# 도마 金 예약... 양학선 런던서 날다

한국 기계 체조 대표팀 적응 훈련 돌입  
단체전·개인전 무더기 메달 획득 기대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기계 체조 대표 선수들이 무더기 메달 획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성동 총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오후(현지시간) 런던 노스 그리니치 아레나 인근 공식 훈련장에서 두 시간 동안 적응 훈련을 하고 컨디션을 조절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런던에 입성한 체조 대표팀은 시차 적응이 안 돼 피곤한 상태에서도 졸음을 이겨가며 기술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도마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평가받는 양학선(20·한체대)은 공중회전 동작 후 완벽하게 착지하는 연습에 매진했다.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경기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아는 조 감독은 양학선에게 인터뷰를 최대한 자제하고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태릉선수촌의 파란색 포디엄(바닥)에서 올림픽을 준비해 온 선수들은 경기가 열리는 노스 그리니치 아레나의 포디엄이 밝은 분홍색인 점을 고려해 새로 눈에 익히는 연습도 병행했다.

마루운동,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등

6개 종목에 고루 능한 베테랑 김승일(27·수원시청)은 “포디엄이 화려해 어지럽다”며 “빨리 적응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장인 김지훈(28·서울시청)은 “런던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돼 선수들의 몸이 무겁지만 전체적인 팀 분위기는 아주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열리는 단체전 예선에서 선수 개개인이 좋은 결과를 낸다면 종목별 결선에서는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많은 메달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도마 금메달 이외에도 6종목을 모두 뛰는 개인종합에서 김수면(26·포스코건설)에게 동메달 이상을 기대한다.

또 철봉에 출전하는 김지훈과 마루운동을 뛰는 김수면·김희훈(21·한체대)도 메달을 수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4개씩 수확한 한국 체조는 예상대로만 풀린다면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다.

김지훈은 “지금의 대표팀은 약 3년간 손발을 맞춰와 호흡에서는 최고를 자랑한다”면서 “다만 금메달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는

## 양학선 ‘金 도전’ 기술



- 1 도용달기 2 구름판을 힘차게 밟아 도약 3 도마 짚기
- 4 공중에서 무릎을 펴고 양 팔을 몸통에 최대한 붙이고 3바퀴(1080도) 회전
- 5 정면 방향으로 그대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착지

### ■ 스카라 트리플 난도 7.0점

공중에서 3바퀴를 비틀어 도는 기술

### ■ 양학선2

도약 후 공중에서 3바퀴 반(1260도) 회전으로 현존하는 기술 중 최고 난도 양학선1 보다 안정적인 착지를 할 수 있음

양학선이 이를 극복해낸다면 단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학선은 “경기 날짜가 다가오면서 부담도 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잘 준비해 열심히 도전해보겠다”고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한국은 28일 오전 11시(한국시각 28일 오후 7시)부터 노스 그리니치 아레나에서 영국, 프랑스, 중국과 1조로 단체전 예선을 치른다. /연합뉴스

### “실수는 없다” 훈련 또 훈련

18일(현지시간) 런던 그린위치 아카데미에서 올림픽 체조대표팀 양학선이 땀흘린 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神弓

## 세계신 쏘고 런던 입성

광주시청 소속 기보배

### 한국 양궁 대표팀 연습경기에서 2차례 기록 ... 컨디션 'OK'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절정을 치는 컨디션을 품고 결전지로 떠났다.

남자부 오진혁·임동현·김법민, 여자부 최현주·이성진·기보배(광주시청) 등 태극궁사 6명은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

이들 선수는 하나같이 밝고 자신 있는 표정을 내비쳤다. 특히 고무적인 점은 전날 마지막으로 치른 기록경기에서 세계기록을 두

차례나 경신하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는 사실이다.

남자 선수들은 전날 치러진 세 차례 24발 단체전 연습경기(만점 240)에서 235점을 두 차례, 220점대 후반을 한 차례 기록했다.

공인 세계기록은 임동현·오진혁·김우진이 작년엔 열린 런던 프레올림픽 8강전에서 작성한 233점이다.

두 차례 달성한 비공인 세계기록 235점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여

유 있게 우승할 수 있는 점수대다.

선수 3명이 10점 과녁을 19차례, 9점 과녁을 5차례 맞힐 때 나올 수 있는 점수로 구성원의 컨디션이 거의 신궁(神弓)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남자 대표팀 주장 오진혁은 “남자 선수들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 좋은 컨디션을 어떻게 지킬지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베테랑 임동현도 현재 컨디션에 만족하면서도 런던에 도착해 경기

때까지 찾아올 각종 변수를 통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동현은 “연습은 연습일 뿐”이라며 “실제로 경기에서는 점수가 5~7점 정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자 선수들도 지난주까지 사소한 컨디션 불안이 있었지만 이번 주 기록경기에서 고득점대를 쏘아 안정감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보배는 “근래에 점수가 계속 높게 나오는데 런던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다”며 “가서 컨디션을 경기에 맞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 선수단복 '베스트 유니폼'

#### '타임' 선정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나서는 한국 선수단이 개폐회식에서 입을 단복(유니폼)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베스트 유니폼'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타임이 선정한 '2012년 런던 올림픽 베스트(Best) & 워스트(Worst) 유니폼'에 따르면 한국은 프랑스, 자메이카, 뉴질랜드, 이탈리아, 독일, 영국과 함께 베스트 유니폼 국가로 선정됐다.

반면에 중국산 논란이 불거졌던 미국 외에 호주, 러시아, 중국, 스페인, 홍콩의 유니폼은 '워스트'로 분류됐다. 타임은 한국 유니폼에 대해 “세일러복 스타일의 옷이 아주 세련됐다”며 “재킷은 몸매를 잘 드러내 주도록 디자인됐고 빨간색 스카프가 멋지게 두드러진다”고 호평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 개·폐회식 때 공식 후원사인 빈폴이 올해 초 문화재로 등재된 1948년 런던 올림픽 단복에서 착안해 제작한 단복을 입는다.

또 시상식과 훈련 때는 활자가 태극 문양을 기본 콘셉트로 하고 단정 이미지를 가미해 만든 시상복과 트레이닝복 세트, 티셔츠를 입는다. /연합뉴스



## 펜싱 사브르 '金 찌르기'

구본길·원우영·김정환 첫 메달 향한 남다른 각오

올해 런던올림픽에서 금빛 찌르기를 노리는 남자 사브르팀의 '첫 올림픽 메달'을 향한 각오는 남다르다.

사브르는 '검'이란 뜻으로 베기와 찌르기를 겸용할 수 있는 검을 말한다.

플뢰레·에페보다 짧은 105cm 칼을 사용하고 머리와 양팔을 포함한 상체 전 부분이 유효 타깃이다.

위나 속도감 있게 진행돼 변수도 많고 그날 컨디션에 경기 결과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국 펜싱계에서 사브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유럽 국가들이 중주국인 펜싱이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플뢰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처음 펜싱이 들어왔을 때는 1인 2종목 체제가 자리를 잡아 플뢰레 선수의 수가 독보적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1인 1종목 체제로 바뀌면서 지금은 에페, 사브르, 플뢰레 순으로 인기가 역전됐다.

이전에는 사브르 심판을 오로지 사람이 봤기 때문에 판정에서 유럽 쪽 편세가 작용하는 등 불공정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사브르에도 전기판 정기가 사용되기 시작해 그런 부조리한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종목에 여자 사브르가 포함되자 투자와 관심이 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남자 플뢰레와 에페는 시드니올림픽 때 김영호와 이상기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사브르에서는 아직



2011 러시아 선수권대회에서 프랑스와 맞붙은 한국의 구본길(오른쪽) 선수.

메달이 없다.

아테네와 베이징 올림픽 때는 오은석(국민체육진흥공단)만이 개인전에 출전했지만 올해는 세계 상위권의 구본길·김정환(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원우영(서울메트로)의

최강 전력이 단체전과 개인전에 모두 출격한다. 선수 개개인의 순위는 구본길이 3위, 원우영이 7위, 김정환이 11위에 올라 있는 등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연합뉴스